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

민생 보장 개선에 관한 의견 발부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민생을 일층 보장 개선하여 대중들이 긴박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를 힘써 해결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 민생 건설이 보다 공평하고 균형적이며 보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회보장의 공평성을 증강해야 한다. 사회보장체계에서의 사회보험의 주체적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 취업인원의 기본 양로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 비율을 안정적이고 질서있게 제고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대학졸업생과 취업이 어려운 인원 등에게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저소득 인구 인정 방법과 저소득 가정의 경제상황 확인 방법을 제정하고 최저생활 보장 변동기 가정과 강성지출 곤란가정 인정 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조정하며 최저로임 기준 조정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농촌 저

소득층을 위한 개발식 방조지원 능력 향상 및 소득 증대 행동을 실행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기본공공봉사의 균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대중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련되는 추가 봉사 사항을 적시에 국가 기본공공봉사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역을 기본단위로 공공봉사 계획 배치, 시설 건설, 자원 배치, 인재 배치와 도시농촌간 일체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본공공봉사를 점차 상주지에서 제공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인구 집중 류입 도시의 '도시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여 상주지에서 기본공공봉사를 제공하는 실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기초 민생봉사의 보편적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기초교육 확대 및 질 향상 행동계획을 실시하여 약 5년간의 시간을 들여 의무교육학교의 표준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1,000

개 이상의 우수일반고중을 신축 혹은 확장 건설하여 현역 일반고중의 기본 교육 조건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확장을 추진하고 새로 추가된 고등교육 자원을 중서부 인구대성으로 적절히 기울이며 우수한 대학의 본과생 모집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료위생 기반 강화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 기본의료보험 약품 목록 조정을 보완하고 상업건강보험 혁신약품 목록을 제정, 출범해야 한다. 생활능력을 잃은 로인의 돌봄에 중점을 두고 양로봉사기구의 의료 및 양로 결합 봉사 능력을 향상시키며 간호형 침대 공급을 증가해야 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립 건설 보육 공급을 늘리고 보편적 혜택성 보육을 기업 및 사업단위 종업원복지체계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다양한 사회봉사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사회구역을 주요 장면, 주요 진

지로 삼고 다양한 편민봉사자원의 통합을 강화하며 봉사시설의 복합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체육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기능이 복합된 다용도 운동장을 발전시키며 체육시설 공급을 꾸준히 증가시켜야 한다. 조건이 갖춰진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을 지지해야 한다. 공공정책 제정, 공공시설 건설, 공공봉사 공급에서 아동 우선 원칙과 아동친화적 리념을 시달해야 한다. 사회보험, 사회복지, 세수 등 면에서 가정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당의령도를 민생사업의 제반 분야와 전 과정에 관철시켜야 한다. 각지에서는 책임 시달을 강화하고 재정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며 기본민생 재력 보장을 강화하여 민생의 최저선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중대 민생정책의 부문간 총괄과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민생정책의 실시 성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신화넷

이재명, 이시바 시게루와 통화

9일,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일본 수상 이시바 시게루와 약 25분간 통화를 하고 한일 관계 발전 방향 등 화제를 언급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은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 국가 리익의 각도에서 함께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기를 기대했다. 양국 지도자는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일치하게 인정했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에 양국 국민간의 활발한 교류 추세에 주목하면서 정부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 대통령실은 양국 지도자는 한미일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각종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시바 시게루는 통화에서 이재명이 한국 대통령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고 양측의 노력을 통해 일한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양측은 한일 관계 및 일미한 협력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양측 모두 이른 시일내에 대면 회동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했다.

이재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한국 대통령실의 소식에 따르면 6일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를 하고 한미 관계, 경제 및 무역 협상 등 화제를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이 한국 대통령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트럼프와 가진 통화이다.

/ 신화넷, 인민넷 - 조문판

로스안젤레스 시장

10일 20시부터 일부 지역에 통금령



8일, 시위자들이 로스안젤레스 연방구금센터 린건 길 의사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

/ 신화넷

미국 로스안젤레스 시장 바스는 현지시간으로 10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10일 20시부터 11일 6시까지 시내 중심부 일부 지역에 통금령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바스는 통금 대상 지역은 약 1제곱마일(약 2.59평방키로메터) 규모의 시내 중심부로 제한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활동은 통금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금 조치의 지속 여부는 통금 종료 후 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바스는 통금 조치를 수일간 검토

/ 국제방송

미국 최대 항구, 일자리 절반 ‘뚝’



5월 5일 찍은 로스안젤레스항구

/ 신화넷

미국의 관세조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충격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최근 미국의 최대 항만인 로스안젤레스항구의 일자리가 절반 가까이 줄

고 5월 화물 물동량은 예상보다 25% 감소했다고 항구 책임자가 7일 언론에 밝혔다.

/ 신화넷

재정부 : 기본양로금 적당히 높일 것



6월 10일 오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뉴스발표회를 소집, 민생을 가일층 보장하고 개선할 데 관한 정책 상황을 소개했다.

재정부 사회보장사 책임자 갈지호는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는 도시와 농촌 주민 전국 기초양로금 월 최저표준을 재차 20원 인상하고 퇴직인원 기본양로금도 적당하게 높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대우가 제때에 정액 발급되도록 확보하기 위해 올해 중앙재정은 보조 강도를 가일층 높이는 동시에 양로보험 전국 총괄 조정을 전개하여 3억명 이상의 로인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 인민넷 - 조문판

◀ 6월 10일, 군중들이 병화회족자치구 은천시 금봉구 람산공원에서 100인 공무(功夫) 부채 전시공연에 참가하고 있다.

/ 신화넷

캘리포니아주정부, 트럼프정부를 고발



6일, 로스안젤레스에서 항의자들이 손패말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 신화넷

10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연방 법원은 트럼프정부가 미군과 캘리포니아주 국민방위군을 동원해 캘리포니아주 각 사회구역에서 집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즉각 막아달라는 캘리포니아주의 립시 제한령 제안을 이날 기각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에 군대와 국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지지자들을 넘어섰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실은 10일 보도자료를 발표,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연방정부가 현재 군대를 동원한 행

위는 ‘불법’이고 주권에 ‘딤편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주정부의 국민방위군 동원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민간 소동’을 진정시키기보다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에 따라 트럼프정부가 군대와 국민방위군이 캘리포니아주 사회구역 순찰 및 기타 집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즉각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는 9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는 트럼프가 7일 발표한 대통령 데모 및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로스안젤레스에 투입하도록 미국 국방부에 명령한 것을 위법으로 판결할 것과 관련 명령을 철회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불법이민자를 수색하는 미국 연방기관의 요원들은 연일 로스안젤레스 국민들과 여러차례 충돌을 겪고 있다. 트럼프는 7일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뉴슨이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안젤레스지역에 캘리포니아주 국민방위군 2,000명을 파견하는 대통령 비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국방부 관원들은 9일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국민방위군 2,000명을 로스안젤레스 지역에 증파해 연방 집법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화넷

◀ 8일, 로스안젤레스의 연방집법기구 문앞에서 한 항의자가 경찰에 통제된 모습.

/ 신화넷

